

# 전남도, 2030년까지 식품산업 규모 21兆로 성장시킨다

식품산업 육성 추진계획 마련  
5개 분야별 목표·실행방안 담아  
100억 매출기업, 40개사로 확대



전남도가 2030년까지 식품산업 규모를 21조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식품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전남도가 2030년까지 식품산업 규모를 21조 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식품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총사업비는 4조6893억 원이다.

기존 생산 위주에서 탈피,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구축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축산, 수산, 수출, 연관사업,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5개 분야별 목표와 실행방안을 담았다.

농축산의 경우 쌀·양파·김치·돼지 4개 품목을 전략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남쌀 가공업 생산·유통플랫폼 32억 원 ▲양파와 김치 육성을 위한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 280억 원 ▲해남 K김치 클러스터 590억 원 ▲축사 현대화와 ICT 기반 구축 1800억

원 등 463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100억 원 이상 농식품 매출기업을 현재 34개에서 40개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1조3000억 원을 들여 무안과 함평에 인공지능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남도장터 판촉도 강화할 방침이다.

수산 분야는 김·전복·넙치·조기 등

4개 품목을 전략식품으로 정해 ▲국립 김산업진흥원 건립 400억 원, 김양식어장 10% 확대 ▲전복 육성을 위한 친환경 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 확대 78억 원 ▲넙치 육성을 위한 AI 양식기술 보급 500억 원 ▲스마트조기 양식산업화 센터 160억 원 등 216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427억

원, 수출단지 조성 1137억 원, 마른김 물류시설 확충 600억 원, 전북 유통상자 규격 단일화 199억 원 지원 등을 통해 수산식품 100만 달러 수출기업을 현재 60개에서 2030년까지 85개로 늘릴 방침이다.

수출 분야에선 온라인 수출플랫폼 확대 139억 원, 해외 상설판매장 82억 원 지원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해외 주류 대형 식품산업 식품마켓 입점 기업도 현재 4개에서 16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연관사업 분야에선 앵커기업을 포함한 식품기업 10개를 유치하고 무안 K푸드 융복합 단지를 1661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도는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매년 열고, 전남연구원의 연구유역을 통해 육성 방안도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 다음달 18일엔 서울에서 식품산업 앵커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전남도

#### 농가 재해지원금 154억 지급

전남도가 벼 재배농가 중 지난 9월 집중 호우와 비열구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지원금 154억 원을 지급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집중 호우로 벼 7409ha에서 쓰러짐 등의 피해가, 8~9월 폭염(고온)으로 9261ha(벼 재배면적 14만8000ha의 6.3%)에서 비열구 피해가 각각 발생했다.

이에 비열구 피해 9601농가에 농약대 91억 4000만 원(ha당 100만 원), 대파대 2억4000만 원(ha당 200만 원), 생계비 1억8000만 원(피해율 50% 이상) 등 총 95억6000만 원의 복구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 여수시

#### 신규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여수밤바다가 한층 다채롭고 매력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여수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 '리듬 오브 더 나이트, 여수(Rhythm of the Night, YEOSU)'를 주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야간관광의 공간적 확대 및 다변화되고 차별화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것으로, 기존 여수밤바다에 소리와 빛, 감성적 체험 요소를 더한 '다감각적 야간관광 이미지 구축 사업'이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 부산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부산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한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며,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 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울진군

#### '직산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

울진군은 태풍 및 고파랑 등으로부터 연안침식을 방지하고 연안보호를 위해 2025년부터 '직산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경북 울진군 평해읍 직산리는 지속적으로 모래 유실이 발생하여 연안침식이 진행 중인 실정으로 '2023년 경상북도 연안침식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침식등급이 C등급(우려)에서 D등급(심각)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울진군은 연안 침식 현황 등을 장기간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하고 해양수산부에 직산지구 연안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그간 노력의 결과로 총 사업비 93억 원을 확보하여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김장철 맞아 '해남 절임배추' 인기

김장 소규모·간략해짐에 따라  
편리한 절임배추 시장 '주목'  
해남, 전국 배추 재배량 26% 차지



해남군(명현관 군수)의 절임배추 현장점검 /해남군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된 가운데 청정해남의 절임배추가 인기 상승가를 달리고 있다. 절임배추는 김장을 준비할 때 가장 번거롭고 까다로운 과정으로 꼽히는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과정 없이 바로 김치를 담을 수 있어 최근 김장 문화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김장의 규모가 소규모로 바뀌고 간략해짐에 따라 편리한 절임배추 시장으로 소비자들 몰리고 있다.

명품배추로 인정받는 해남배추를 이용해 만든 해남절임배추는 김장 시장의 절대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남군은 전국 배추 재배량의 26% 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로, 올해 4257ha 면적에서 배추를 재배하고 있다. 올해 생산량은 34만여톤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중 20% 가량이 관내 업체에서 절임 배추로 가공될 것으로 보인다. 해

남 절임배추는 지난해 관내 700여농가에서 248만여박스(20kg 기준)를 판매, 930여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해남절임배추의 인기는 원재료인 해남배추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높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해남절임배추는 70~90일 이상 충분히 키워 2.5kg 이상 결구가 잘된 배추만을 사용해 국산 천일염과 깨끗한 물로 위생적인 시설에서 만들어 3~4차례에 걸쳐 씻어 물기를 뺀 후 배대되므로 바로 김치를 담을 수 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서해안 철도망으로 지역균형발전 앞당겨야"

영광, 함평, 군산, 부안, 고창 지자체장 결의문 통해 충청·경기비 차별 우려

호남 서해안권(영광, 함평, 군산, 부안, 고창) 5개 지자체장이 "서해안 철도망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5개 지자체장은 서해안 철도 인프라 관련, 호남 서해안권이 충청·경기지역에 비해 일방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지난 2일 서해선(홍성~서화성),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3개 노선이 동시 개통하면서 충남·경기지역 철도망 구축의 선기원이 열렸다. 동해안 역시 울진·말포항-삼척간 철도가 개통될 예정이다. 반면, 전북과 전남 서해안은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비롯해, 조선업과

원자력, 해상풍력, 전기차, 드론 등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산업의 중추임에도 철도망 구축은 수십년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5개 지자체장은 결의문을 통해 "서해안 철도는 물류비용을 줄여 국가 첨단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포화상태에 이른 서해안고속도로 통행량을 분산시켜 탄소배출 저감과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끌어 올릴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폭발하는 관광수요 대응 차원에서 철도망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호남 서해안권에는 현재 운영중인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향후 5년 내 새만금국제공항, 3개의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터미널이 본격 운영될 예정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 관광객을 내륙까지 실어나르기 위해선 철도망이 필수적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 경주시, 내년 본예산 2조 250억 편성

올해비 6.5%↑... 사상 최대 규모

경주시가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250억원의 내년도 본 예산 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 예산 대비 1250억원(6.5%) 늘어난 규모다.시는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에도 불구하고, APEC 유치에 따른 국·도비 확보 등으로 사상 최대 예산 편성을 이뤄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고 일반수용비 등 경상경비를 추가 삭감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화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지방채 없는 건전 재정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함께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저출생 극복, 서민 경제 안정을 주요 예산 편성 방향으로 설정했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세부 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5348억원(26.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공공질서 및 안전·환경 2812억원(13.8%) ▲국토 및 지역개발 2311억원(11.4%) ▲농림해양수산 2267억원(11.2%) ▲문화·관광 2123억원(10.5%) ▲교통·물류 839억원(4.1%) 순으로 배정됐다.

APEC 정상회의 관련 예산은 국비 438억원, 도비 563억원을 포함해 1916억원 규모로 확보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디어센터 건립 138억원 ▲HICO 리모델링 120억원 ▲엑스포 행사장 정비 104억원 ▲하천·도로 및 교통 정비 157억원 ▲사적지 정비 32억원 ▲제2동공원 조성 마무리 90억원 등이 포함됐다.

## 광주 '상무지구대로 경찰관' 신고출동 최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인당 한 달 평균 25.31건 출동

광주 지역 경찰관서 중 신고 출동이 가장 많은 곳은 서부서 상무지구대로 경찰관 1인당 한 달 평균 25.31건의 출동을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출동 신고가 가장 적은 북부서 석곡과 출소는 1인당 5.38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경찰서별 파출소·지구대 신고접수 현황'과 광주경찰청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개월간 광주 관내 파출소·지구대 신고출동 건수는 총 32만 7362건이다.

이는 한달 평균 2만5182건, 하루 평균 약 827건 수준이다. 광주 파출소·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전체 경찰관이 128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달 1인당 19.67건의 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신고출동이 가장 많은 곳은 서부서 상무지구대로 13개월간 2만7313건을 출동했다. 한달 평균 1인당 출동은 25.31건으로 이 광주에서 가장 많았다.

2위는 광산서 수완지구대(2만4686건)로 한달 평균 1인당 출동은 24.98건, 3위는 북부서 우산지구대(2만3422건·역전지구대 포함) 1인당 20.01건으로 조사됐다. /광주=양수영 기자